

‘전남형 기본소득제’ 추진 본격화

청년·농어민에 일정액 생활자금 지원 형평성 논란 해소·재원 마련 등 관건

청년과 농어민에게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가 추진위 구성, 용역 발주 등 시행 준비에 들어가면서 형평성 논란 해소, 재원 마련 등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여론 수렴 등 절차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구직 중인 청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김 지

사는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는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만 0세에서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월 25만씩 지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남도는 다음 달 초 용역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복지 분야 유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4개월가량 기간에 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적절한 지원 대상, 방법, 액수 등을 제시하게 된다.

최근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경기도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적용 폭은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남도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는 추진이 순조로울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행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등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포용적 성장의 핵심 요건”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단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최근 해남군이 도입한 농민수당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저소득 농업인과 구직 청년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기본소득제를 구울 수 단으로 전락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선별복지로 왜곡한 것”이라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복지정책을 왜곡하지 말고 농민, 도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전남도 오늘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한 뒤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전남도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도청 9층 정약용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설훈·남인순·박광은·김해영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서재필실로 옮겨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한전공대 설립 등 주요 국비지원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 회의는 경북 구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집권여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남의 현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김정숙 여사, 주월동 경로당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광주시 남구 주월동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 경로당을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기업·대학·유관기관과 미래먹거리 논의

광주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략산업 혁신성장 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기업, 대학, 유관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가 참석, 광주 미래먹거리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은 9개 지역 기업,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7개 대학, 광주과학기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 등 16개 산업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4개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다.

회의는 광주시 산업 분야 국비 확보 현황과 추진 사업 등을 보고받고 기관별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

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립, 안과광학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부품 상용화 실증,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 구축, 광주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내년도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산업을 소개했다. 이어 광산업, 의료, 공기, 자동차, 가전, 에너지, ICT융합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매월 1회 각 기관의 기획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실제 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내년 광주시의 산업 분야 신규 국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했다”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에 맞춘 신산업 발굴로 풍요로운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 문제 있다”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 “논란 신속 매듭지어야”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5·사진) 의원은 6일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둘러싼 공론화 논의의 대표성·책임성·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광주시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가”라며 질타했다.



특히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며 “16년간의 소모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대부분의 시민은 수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학습했고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민 염원을 생각할 때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까지 14일간의 회기가 들어갔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등 결산안 5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재 이뤄지는 공론화 논의의 문제점으로 이 의원은 대표성·책임성·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 참여자들이 과연 150만 광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주요의제들을 몇 번의 학습과 토론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6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FM)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독자개발 로켓 ‘누리호’ 시험발사체 공개

다음달 25일 발사 예정

6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1단짜리 흰색 발사체가 공개됐다. 이 발사체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용 75t 액체엔진을 달고 시험비행에 나설 비행모델로, 오는 10월 25일 발사될 예정이다. 시험발사체가 비행에 성공하면, 2021년 발사될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시험발사체의 비행모델(FM)을 공개했다. 시험발사체는 누리호에 쓰이는 75t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

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 지름은 2.6m, 무게는 52.1t이다.

이 시험발사체의 발사는 다음달 25일께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국가우주위원회가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5일 항우연은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의 ‘쌍둥이’ 격인 인증모델(QM)을 이용해, 지상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인증모델에 달린 액체엔진은 154초간 불꽃을 내뿜으며, 시험 목표 시간인 140초를 가뿐히 넘겼다. 이 시험에 성공하며, 시험발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연합뉴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